

### ‘사회 교과중점학교’가 궁금해요.

중3 아들이 정치·경제 분야에 관심이 많아 사회과학 계열 진로를 희망합니다. 고교 선택을 앞두고 아들의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학교를 찾는 중입니다. 사회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정보가 궁금해요.

\_정소영(48·인천 연수구 연수동)

### ‘사회 교과중점학교’의 정식 명칭은 ‘사회 교과특성화학교’입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교과특성화학교’란 특정 진로 분야에 대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뜻합니다. 일반고와 자율고의 학생이 스스로 선택한 진로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과목 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과학중점학교, 예술·체육중점학교에서 제공되던 교과에 더해 사회, 제2외국어, 기술, SW, 융합 등으로 분야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사회 교과특성화학교는 송도고 대인고 인천대건고 학익여고 문일여고 등입니다. 인천 송도고 송윤근 교사는 “우리 학교는 사회와 IT 융합 등 두 가지 교과에 대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과특성화학교다. 1학년은 실용경제, 2학년은 경제, 사회탐구방법, 사회과제연구, 3학년은 국제경제, 국제정치, 경제수학 등을 집중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국제 이해 교육 강좌, 세계 시민 교육, 토론 캠프, 모의유엔, 창의융합 프로젝트, 사회과학 캠프 등 심도 있는 진로 탐색이 가능한 창의체험 활동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사회 교과특성화학교도 사회, 경제, 사회융합, 사회융합 평생교육 등으로 분야가 세분화돼 있고, 분야가 같더라도 세부적인 교육과정은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교 선택 시 지원할 학교의 교육과정이 진로에 도움이 될지 꼼꼼하게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

#### MORE TIP

서울 지역의 사회 교과특성화학교는 건대사대부고 보성여고 동작고 공향고 중경고 수도여고 대일고 재현고 기락고 등입니다. 경기 지역에는 중흥고 용문고 원종고 구리고 장기고 등이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전국에 62개교가 사회 교과특성화학교로 운영 중(2021년 5월 기준, 추후 추가 신규 지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이니 참고하세요.

취재 백정은 리포터 bibibibi22@naeil.com

## 진로 변경으로 계열 관련 과목 미이수 시,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이 가능한가요?

고3 엄마입니다. 아이의 성향이 문·이과로 특별히 구분되지 않는 거 같아 고민하다가, 취업을 고려해 자연 계열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 수학, 과학을 너무 어려워하고 성적도 저조하네요. 사회 과목을 거의 안 들었는데, 인문사회 계열로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이 가능할까요?

\_ 전선영 (48·서울 송파구 방이동)

### 선택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지원 학과와 관련해 뛰어난 학업 역량을 보여준다면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과목을 거의 안 들은 학생이 종합 전형으로 인문사회 계열을 지원한다면 계열 적합성 측면에서는 감점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학과와 본인의 학업 역량에 따라 변수가 있습니다. 경희대 입신택 입학사정관은 “상경계는 수학을 많이 활용하므로 이 분야의 역량이 탁월할 경우 보완될 수 있다. 순수 어문 계열로 진로를 바꾼 경우는 사회과목 미이수가 더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어학 관련 특기가 돋보인다면 다른 감점 요인이 있더라도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관건은 학생의 진로 변경이 아니라 관련 역량의 유무입니다.

대학은 전공 관련 직업군을 좁게 해석하지 않고 계열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학생의 꿈이 과목 선택 이후에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열을 넘나드는 변경의 경우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임 입학사정관은 “자연계는 수학과 과학 관련 기초 역량이 매우 중요하므로 선택 과목의 영향이 크지만, 인문사회계는 상대적으로 덜 하다. 본인이 지원하려는 학과와 관련해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대학은 선발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선택 과목은 여러 평가 요소 중 한 부분에 불과하므로, 다른 역량이 뛰어나다면 일부 감점이 있어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MORE TIP

지원하려는 대학의 제출 서류에 자기소개서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계열을 바꿔 지원하게 된 동기를 성의 있게 작성해 보여준다면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의과학대 이경진 입학사정관은 “진로에 일관성이 없을 경우 종합 전형에 지원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에 지원 동기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고 진로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잘 보여준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자기소개서는 점수로 산정되지는 않지만, 학생부에 나와 있지 않은 자신의 매력을 보여주는 소명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조언합니다.

취재 이지영 리포터 easygoing@naeil.com



〈내일교육〉 편집팀이 매주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초·중·고 자녀를 둘러싼 학습·입시·진로·생활 등 질문의 폭을 다양화합니다. 속시원히 털어놓으세요. 이메일(asjung@naeil.com)로 질문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_편집자